

문현1동 돌산마을 정비사업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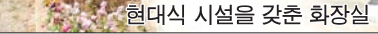
경로당 2곳 개·보수 돌산공원 정비, 화장실 신축·보안등 설치도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문을 연 89경로당 어르신들이 즐거워 하고 있다.



새롭게 단장한 돌산공원



현대식 시설을 갖춘 화장실

담장벽화로 유명한 문현1동 15동 지내 돌산마을이 최근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완료하고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이곳의 경로당 2곳이 개·보수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었으며 인근 돌산공원이 말끔히 정비됐다. 이와 함께 화장실이 신축되고 보안등이 추가로 설치되면서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오랜 숙원을 해결한 돌산마을 주민들은 지난달 24일 허남식 시장과 김정훈 국회의원, 이철형 구청장, 이철형 새마을금고 이사장, 이산하 시의원 이진호 구의원 등의 내빈과 어르신들을 초청해 조촐한 잔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종철 구청장과 김정훈 국회의원, 이철형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다음은 새롭게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새롭게 단장된 돌산공원과 경로당 등을 둘러본 내용이다.

◇ 돌산공원

1999년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성된 돌산공원은 41,446㎡로 행정구역상 진구 전포동과 남구 문현동으로 양분되어 있다. 공원에 모과나무와 벚나무들이 싹을 틔우고 쪽쪽 빨은 사

철 푸른 편백나무들이 양쪽맞은 새집을 매달고 새들의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산책길을 따라 멋진 공영장, 흐드러진 유채꽃 밭, 보리피리 소리 들릴 듯한 정보리밭,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공원 중앙의 시계탑은 지난 추억을 들춘다.

가치런히 신발을 벗어두고 쉬고 싶은 정자며 산보 나왔다 돌산공원의 풍취에 반해 아직도 절로 돌아가지 못한 외발(?)도 만날 수 있다. 오밀조밀 짜임새 있는 공원이다.

부처님도 반한 돌산공원에 하루 300명 정도의 주민이 찾는 정도로 붐비는 편. 매주 화요일엔 성당에서 점심 무료급식도 한다. 그런데 이 공원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하던 중 허남식 부산시장의 특별교부금 193천만원을 지원받아 공원 입구 은은한 음악이 흐르는 예쁜 화장실을 신축했다. 또한 남구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숲 정비, 공원 기반조성, 불철 나무심기 행사 등 돌산공원 가꾸기 사업에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역기올리기, 온몸치킴기 등 체력단련시설 12종을 설치해 주민들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기도.

◇ 경로당

돌산공원 인근 문현동 산23-3번지와 산23-1번지에 위치한 '88경로당'과 '89경로당'. 깨끗하게 단장된 88경로당은 아담하고 창을 통해 보이는 전망이 뛰어난 장소다. 반면 89경로당은 넓고 화원수도 30명에 이르며 개축 후 회원 수가 늘고 있는 추세란다. 깨끗한 싱크대, 에어컨, 옷장, TV, 재난방송용 스피커도 비치되어 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돌

산마을에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주민들의 빠른 대처를 위한 방수용 스피커는 경로당 개축행사에 즈음해 이철형 전 남구의회의 의장이 기증한 것이라고. "깨끗하고 쉬기 위해 아침밥만 먹으면 달려온다"는 이옥매(80)할머니는 친구들과 하루 종일 사랑방에서 얘기하고 즐겁게 지내서인지 연세보다 훨씬 젊은 편이다.

개·보수가 이루어지기전 경로당은 좁고 벽체에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어 있는 사랑방으로서 비위생적이었다. 이에 부산시의 도시환경정비비금 1억원을 지원받아 88경로당은 기존 경로당을 완전철거, 조립식으로 신축하고 88경로당은 난방용 전기판넬 설치, 장판과 벽지 교체, 수세식 화장실 설치, 외부도색 등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머물고 싶은 경로당으로 재탄생했다. 또 20여개의 가로등도 설치해 주민들의 야간통행에 안전을 기했다. 어르신들은 공원과 경로당을 오가며 즐거운 봄날을 맞이하고 있다.

돌산공원의 화장실 신축 특별교부금과 경로당 개·보수를 위한 도시환경정비비금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공헌한 숨은 일꾼이 있다. 이 마을 황숙인(52·여)통장이 그 주인공이다. 지난 해, 부산시장 취임 전 가진 '시민 100인과의 대화'에 참석한 그녀가 시장에게 돌산마을을 꼭 한번 방문해 달라고 요청, 취임 첫날(7월 1일) 허 시장이 마을을 방문한 것. 주민들은 한복소리로 오랜 숙원인 돌산공원 화장실 설치와 경로당 개·보수를 건의했고 허 시장은 즉석에서 흔쾌히 약속해 지난해 9월부터 2건의 공사에 착수, 이날 준공 기념식을 가졌다. 이두래 기자

주민편의 사업 진행 착착

이기대순환도로 확장공사 등 내달 준공



이종철 구청장이 이기대순환도로 확장공사 현장을 찾아 현황을 살피며 완벽시공을 주문하고 있다.

허물고 리모델링해 주민쉼터와 지역아동센터, 경로당을 설치하는 이 공사는 빠르면 5월초 준공될 예정이다.

용호4동 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의 하나로 건립되고 있는 공립 어린이집은 당초 1층 공사로 마무리 하려고 했으나 국·시비 2억 6,9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2층으로 증축기로 했다. 구는 설계를 변경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재개, 8월말 준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부경대 대연캠퍼스~UN교차로간 자전거 도로 개설 공사도 다음달 준공 목표로 포장공사를 하고 있다.

한편 이종철 구청장은 올해 초부터 10여 차례 공사 현장을 찾아 현황을 살피고 작업 인부들을 격려하며 완벽시공을 독려하고 있다.

쾌적한 도시환경 우리가 가꾼다

단체원 주민 환경정비 자발 참여



새마을운동남구지회는 지난달 29일 백운포 해안가에서 대대적인 환경정비활동을 펼쳐 각종 오물을 수거하고 있다.

새봄과 함께 깨끗하고 아름다운 남구를 가꾸기 위해 구와 각급단체, 주민 등이 팔을 걷어 붙였다. 남구는 지난달 29일을 새봄맞이 일제 대청소의 날로 정하고 백운포 등 관내 14개소에서 주민과 공무원 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인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참여자들은 이날 하루 동안 겨우 내 쌓여진 각종 쓰레기 20톤을 수거하며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새마을운동남구지회(회장 김철)는 단체원과 해작사 군인, 공무원 등과 함께 백운포~오륙도 해안가에서 대청소 활동을 벌여 쓰레기

4톤을 치웠다. 한국자유총연맹 남구지회(회장 김영섭)는 천안함 발발 1주기를 맞아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단체원 50여 명이 UN탐의 묵은 때를 씻어냈다.

대연4동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부산3남구지부(당회장 김문수)는 지난달 20일 성도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공원 등 대연4동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지부는 이날 하루 동안 3톤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 대연4동 만들기에 동참했다.

항령산길·이기대해안길 함께 걸어요

‘걷고 싶은 갈맷길 알림’ 사업 추진

남구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그린도시환경 구현을 위해 ‘걷고 싶은 갈맷길 알림’ 사업을 공식적 갈맷길 바로알기 걷기 체험행사-갈맷길 걸연맺기-갈맷길 관광상품화 등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공직자 갈맷길 바로알기 걷기 체험행사는 부산의 명품길 ‘갈맷길’을 공식직자가 우선 체험하고 문제점 등

을 보완 개선, 갈맷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실시된다. 지난 10일 용호3동 직원들이 이기대 해안길을 찾은 것을 시작으로 매주 구청 실·과와 사업소, 동에서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계속되고 있다.

관내 유관단체와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1단체·1사 갈맷길 걸연맺기도 추진된다. 항령산길은 남구

환경사랑 이웃사랑

폐휴대폰 수거합니다

남구는 지난 1일부터 사용하지 않는 폐휴대폰 모으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남구는 가정에 방치된 폐휴대폰이 자원낭비는 물론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는 점을 착안, 이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구는 폐휴대폰 수거함을 구청 민원실과 동주민센터, 새마을금고 등에 설치하고 수거에 나서고 있다.

폐휴대폰을 가져오는 주민들에게는 경품음모권 1매를 지급, 행사 종료 후 추첨을 통해 LCD TV와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문화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한다.

수거된 폐휴대폰 중 사용가능한 휴대폰은 선별해 매각하고 사용할 수 없는 폐휴대폰은 재활용업체에 공개 매각해 수익금은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할 예정이다.

캠페인은 6월30일까지 계속된다.

구 관계자는 “환경사랑과 이웃사랑을 위한 폐휴대폰 모으기 사업에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607-4451

청년회와 해병전우회가, 이기대 해안길은 새마을지도자, 한국자유총연맹 등이 결연을 맺고 걷기체험과 환경정비에 나선다.

구는 관내 여행사에 갈맷길 관광상품 개발협조 안내문 등을 발송하고 안내지도를 비치하는 등 갈맷길 홍보와 관광상품화를 추진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2월 부산 걷고 싶은 길 21개 코스 ‘갈맷길’을 선정, 발표했는데 이 중 남구지역에는 항령산길과 이기대해안길이 포함돼 부산을 대표하는 명품길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서민과 함께한 반세기 ‘감만1동골목시장’

추억이 흐르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가다

감만 골목 시장은 한껏 물오른 봄 동산이다. 온통 나물 천지다. 쑥, 냉이, 취나물, 방풍나물 등. 보기만 해도 풍요로움이 느껴진다. 동네 할머니가 캐왔다는 쑥을 한줌 쥐여보니 통통하면서 향기가 절다.

5년째 이곳에서 ‘부부상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야채를 팔아온 박병찬, 남미자 부부. 모든 야채들은 남해에서 직송해온다며, 해풍을 맞고 자란 푸성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그래서인지 야채의 색깔이 바다처럼 짙푸르다.

바다처럼 싱싱한 과일·야채

6년째 이 자리를 지켜왔다는 ‘성룡 측석 두부’는 수입과 국산을 구분해 놓았다. 요즘은 재래시장 소비자들이 꼭 원산지를 확인한다. “전에는 재래시장에선 그냥 믿고 샀었습니다. 그런데 옛날과 달리 요즘은 수입 농산물이 많다보니 꼭 원산지를 확인 하셔야 라구요. 특히, 요즘 아이들은 아토피도 많고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지 주부들도 많이 까다로워졌어요.” 곁에 진열되어 있는 정국산 요 직접 띄워 판매한다며 드셔보면 또 찾으실거라고 권한다.

감만시장은 약 50여년전, 인근 논밭에서 농사지은 야채와 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파관에 내 놓고 팔기 시작하면서 차츰 시장으로 형성이 되었다. 그러나 이곳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인구가 유출되기 시작하였다. 재개발 지역이라서 인접시장이 되지 못해 구에서 도움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었다.

300여 점포 영업, 위용 자랑

에드빌론만 띄워놓고 지지부진한 상태로 인해 헐릴지 몰라 현대화 시설로 바꾸지도 못하고 있다며 ‘감만1동 상인 협의회’ 박성수(56)회장은 한숨짓는다.



충무상회 손만순씨



자일감만전환장 이정숙씨



남해상회 배문삼씨



측석어묵 이미자 정명숙씨



신도불이식품 신승용씨

그러나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 5년 전 상인 연합회를 조직 약 150여 점포가 회원으로 등록, 오를까지 감만시장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만시장 사거리에서 T자형으로 양방 150m 정도에 약 300여 개의 점포가 자리한 큰 시장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어 옛날에는 감만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가히 짐작이 간다.

좌판 하나로 자녀교육

큰길가를 벗어나 골목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생선 가게가 줄을 지어 있다. 미꾸라지만 전문으로 취급하며 15년 동안 자리를 지켜왔다는 ‘남해 상회’ 박금심(72) 할머니는 옛날에는 사람에 치여 장보기가 어려웠지만 번성했던 과거를 들려준다. 1남1녀를 잘 키울 수 있었던 것도 이 좌판 때문이라며 손만순(73) 할머니는 시장 좌판이 고마워서 손을 놓지 못하고 아직 지키고 있다.

긴 골목을 빠져나오니 ‘삼진어묵’이라는 측석 어묵 가게가 떡 버티고 있다.

금방 찜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의 맛이 기억됐다. 맛의 비결

을 물으니 밀가루와 어육의 비율이 중요하다고 한다. 특히 이마자(72) 정명숙(49) 두 고부간의 절다른 모습이 보기 좋아 손님이 몰린다. 10년째 되었다는 ‘감만 식육점’ 이상인(55) 사장은 세계적인 불황이라 누구를 탓할 수 없다며 오직 정직과 최상의 서비스로 단골 확보만이 살길이라고 열변을 토해낸다. 그러나 구역적으로 인해 소비자의 발길이 주춤하다며 한숨을 짓는다.

정겨운 우리네 장터 실감

건어물가게 ‘신도불이 식품’ 신승용(74) 할아버지는 목을 직접 썰어 팔고 있다.

전막 위쪽에 끈으로 매달아 놓은 ‘호박고구마(해남산), 참고구마(목지도산)’라는 산지 표시판이

바람에 흔들리며 행인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다. 절로 미소가 일어 할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자니 문득, 얼마 전 모 일간지에서 읽은 부산의 노포(老舖)라는 연재물이 생각났다. 노포(老舖)! 글자 그대로 오래된 점포라는 뜻이다.

그러나 그 연재물에서 표현했던 단순히 오래된 점포라고 다 노포일 수는 없다. 하나의 점포가 지역을 기반으로 그 존재 자체가 지역민의 자긍심으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노포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감만시장은 이곳 주민뿐만이 아니라 남구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랑 받아온 정겨운 우리네 장터임이 실감난다.

오래된 추억의 장터, 바로 그곳이다.

조을홍 기자

지진 발생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